

## 統辭論과 學校文法\*

- 言語 類型論의 觀點을 中心으로 -

韓 政 翰

(檀國大 教授)

### 要約 및 抄錄

이 글의 목적은 주로 言語 類型論의 觀點에서 統辭論의 懸案들을 살펴보고 學校文法 記述을 위한 提案을 해 보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提起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形式主義 體系性을 堅持하고 있는 현행 학교문법의 기술 원칙으로는 더 이상 체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體系性 轉換의 觀點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로 言語 類型論의 機能・意味的 문법 설명을 도입하고자 한다. 具體的으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통사론의 현안은 9가지로 각각 다음과 같다. (1) 單語의 정의, (2) 語尾의 문법 지위, (3) 品詞와 單語의 차이, (4) 格助詞의 인정 여부, (5) 主語의 정의, (6) 目的語의 정의, (7) 補語의 정의, (8) ‘이다’는 띄어 쓰자, (9) 內包와 接續이다.

※ 核心語: 統辭論, 學校文法, 言語 類型論, 單語, 語尾, 格助詞, 主語, 目的語

### 1. 序論

이 글의 목적은 주로 言語 類型論의 觀點에서 統辭論의 懸案들을 살펴보고 學校文法 記述을 위한 提案을 해 보는 것이다. 그동안 학문적인 관점에

\* 이 글은 “한국학술단체연합회(어문련)-국립국어원 전국 학술 대회(2015년 10월 16일)”, 광복 70주년 한글날 기념 전국 학술대회 제 1분과에서 ‘통사론의 쟁점과 국어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서 통사론의 爭點들을 소개한 논문들은 적지 않았지만 통사론을 학교문법과 직접 관련시켜서 논의하는 논문은 상대적으로 疏略한 편이었다. 그러한 이유가 없지 않겠으나, 학자들이 학교문법의 標準性和 規範性이 갖는 무게 때문에 學界의 논의가 熟成되기까지 그러한 논의 자체를 警戒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문문법의 성과가 학교문법의 기술과 乖離될 수는 없다, 그리고 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形式主義 體系性を 堅持하고 있는 현행 학교문법의 기술 원칙으로, 즉 더 이상 체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體系性 轉換의 관점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로 언어 유형론의 機能・意味的 문법 설명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밖에 현행 7차 교육과정 학교문법의 체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 또 학문문법의 성과가 학교문법에 適用되고 具體化되는 節次的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본고와 같은 글의 존재 이유가 될 것 같다.

현재의 학교문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한 「독서와 문법 1」 교과서를 말한다.<sup>1)</sup> 그 이전 단계인 2002년 국어 문법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쓰고, 2012년 국어 문법 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쓰고 있다. 다만 제7차 교육과정의 ‘7차 문법’은 단일 교과서라는 점에서 현재도 여전히 문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아래 두 가지를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학교문법의 자료로 삼는다.

(1) ㄱ.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한 4종의 ‘독서와 문법 I 교과서’<sup>2)</sup>

ㄴ. ‘제7차 교육과정’을 구현한 교과서(7차 문법)

- 교육인적자원부(2002 ㄱ)는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2002 ㄴ)는 ‘교사용 지도서’로 발행 됨.

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이전의 공통 국어가 없어지고 국어과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I, II, 독서와 문법 I, II, 문학 I, II’로 나누어졌다.

2) ‘미래엔’, ‘지학사’, ‘천재교육’, ‘비상에듀’ 4종.

## 2. 先行研究

통사론의 쟁점을 소개하고 학교문법과 관련시켜 논의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최근의 것으로는 김기혁(2000), 유현경(2013), 정희창(2014), 이선웅·이은섭(2013), 이선웅(2014)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sup>3)</sup> 먼저 김기혁(2000)에서 다루어진 통사론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남북한 문장론(통사론)을 비교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ㄱ. 언어관과 언어 이론 - 김기혁(2000)

#### ㄴ. 속구조(심층구조) 해석과 문장

- 1) 속구조와 문장의 표식
- 2) 문법의 단위
- 3) 문장 유형

유현경(2013)에서는 ‘표준 국어 문법의 내용 기술 관련 예시적 쟁점’들을 문법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문법 쟁점들을 분류하고 소개하는 데 목적이 큰 것 같고, 아직 깊이 있는 논의를 進展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예시한 통사론의 쟁점 명칭만을 소개하면 아래 (3)과 같다.<sup>4)</sup>

### (3) 통사론의 미시적 쟁점

#### ㄱ. 문장성분

- 이중주어문의 해석
- 이중목적어 구문의 해석
- 보어의 범위
- 필수적 부사어

3) 문법 외에 문법 교육의 성격, 변화 과정과 학교문법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이문규(2008), 김은성(2006), 신명선(2008)의 논의가 있다.

4)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는 5개년 사업이다(2013: 1018).

- 문장성분과 격 체계의 대응
- ㄴ. 문장의 확대
  - 문장의 분류
  - 어미 체계와 복문 체계의 일치
- ㄷ. 높임법
  - 높임법을 가리키는 용어
  - 압존법의 설정 여부
  - 상대높임법의 체계
- ㄹ. 사동과 피동
  - 피사동 기술의 범위
- ㄻ. 시제와 동작상
  - 시제 범주의 설정
  - 시제 체계
  - 동작상 점주의 설정
  - 동작상의 체계
- ㄴ. 문장 종결법
  - 문장 종결법의 설정과 명칭
  - 문장 종결법의 체계
- ㄸ. 부정
  - 부정법 설정
  - 부정문의 범위

최근의 논의로는 이선웅·이은섭(2013), 이선웅(2014), 정희창(2014)가 있다. 먼저 이선웅·이은섭(2013)에서 통사론과 학교문법과 관련해서 아래 4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이론 문법 자체의 논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교 문법 기술의 體系性, 교육의 容易性, 效用性, 현실적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무엇이 최선의 문법 기술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4) ㄱ. 문장성분과 통사 단위  
 ㄴ. 통사론과 의미론  
 ㄷ. 인용절의 지위와 절 경계  
 ㄹ. 단어의 정의 부분

그리고 이선웅(2014)은 기술문법과 학교문법에 관한 총론적 서술로, 기술문법과 학교문법의 특성 및 차별성, 그리고 상호 적절성 여부를 보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희창(2014)은 아래 (5)에 제시한 형태·통사론의 쟁점들에 대해서 학교문법과 관련시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5) ㄱ. 어근과 어간  
 ㄴ. ‘이다’의 범주 설정  
 ㄷ. 격조사와 보조사  
 ㄹ. 인용절과 인용격 조사  
 ㅁ. 절과 문장  
 ㅂ. 문장성분

특히 유현경(2013), 이선웅·이은섭(2013), 정희창(2014)의 논의는 본고의 3장, 적절한 관련 주제 부분에서 소개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 3장의 핵심 논의는 줄고(2010, 2011, 2012, 2013ㄱ, 2013ㄴ, 2015ㄱ, 2015ㄴ)을 기본 토대로 함을 미리 밝혀둔다.

### 3. 統辭論의 懸案과 所見

이 장에서는 통사론의 共時的 懸案과 학교문법과의 관계를 9가지 하위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고 필자의 所見을 提案하는 것으로 한다. 각 하위 주제는 각각 ① 학교 문법의 관점, ② 문제점, 그리고 ③ 필자의 提案으로 구

성되어 있다.

### 3-1. 單語의 定義

#### 3.1.1. 7차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

학교문법에서 單語(word)는 最小自立形式 a minimal free form이다. 그리고 助詞는 단어로 인정하나, 語尾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折衝式 體系(최현배, 1937)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단어를 자립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단어를 文章成分인 語節과 차별시키는 방법이 된다(이관규, 2004: 116).

#### 3.1.2. 문제점

그런데 통사론의 기본 단위인 단어를 최소자립형식에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아래 (6)에서,

(6) 누구(세요)? - 나.

‘누구’, ‘누구세요’, ‘나’는 단어이고, ‘-세요’, ‘-세’, ‘-요’는 자립형식이 아니므로 단어가 아니다. 문제는 자립형식이 휴지(=끊김, pause)를 토대로 하는 개념인지, 띄어쓰기를 토대로 하는 概念인지 混同된다는 점이다.<sup>5)</sup> 休止라면 依存名詞나 補助用言은 단어가 아니다. 즉 ‘갈 수 없다’에서 ‘갈 수’ 전체가 단어<sup>6)</sup>이고, ‘먹어 보아라’ 전체가 단어<sup>7)</sup>이다. 또 ‘범민족적’의 접두사 ‘범’도 끊김이 있으므로 단어가 된다. 만약 띄어쓰기라면 ‘갈 수’의 ‘수’도 단어, ‘예쁘지는 않다’에서 ‘예쁘지는’, ‘않다’가 모두 단어이다.<sup>8)</sup> 그리고 소위

5) 익명의 심사위원 한 분이 “휴지는 음성언어에서 띄어쓰기는 문자언어(글말)의 맞춤법의 문제이므로 이 둘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오히려 자립형식이라는 말이 어떤 층위의 개념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하셨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고는 여기에 참언하여 ‘자립형식’이 두 층위 모두에서 단어의 정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6) ‘갈 수’의 품사를 어근 ‘가-’에 이끌려 동사라고 하면, 휴지가 없는 ‘갈 수’ 전체는 명사가 됨을 포착 못 함.

7) 보조용언이라는 명칭은 ‘-어 보다’ 안의 ‘보-’의 명칭이지, ‘-어’가 빠진 ‘보-’의 명칭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근 분리 현상인 ‘깨끗도 하다’에서 ‘깨끗도’, ‘하다’가 모두 단어이다. 또, ‘그 일로 겁을 먹었다.’ 같은 연어 구성에서 ‘겁을’, ‘먹었다’가 모두 단어이다.<sup>9)</sup>

그리고 아래 (7)의 ‘손목’과 같은 합성어를 자립형식으로 捕捉하기 위해서, 단어의 정의에 分離性(separability)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즉 ‘손목’을 분리하면 고유 의미를 상실하므로 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지금의 단어 정의는 휴지와 띄어쓰기, 분리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문장성분과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7) 손목에 시계를 차다.

단어와 어절을 분리시키고, 문장성분은 어절을 토대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이때는 다시 ‘어절’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어절은 휴지를 토대로 하는 개념인가? 띄어쓰기를 토대로 하는 개념인가?<sup>10)</sup> 이렇게 되면 단어의 문제는 어절의 문제로 넘어 가고 어절과 단어는 순환 정의에 빠진다.

만일 어절(이 경우 띄어쓰기)을 문장의 기본 구성단위로 보면 ‘빨간 장미가 예쁘다’에서 주격조사 ‘가’가 ‘장미’가 아니라 ‘빨간 장미’에 결합한 것이라는 통사구성을 포착할 수 없다. 또 아래에서 보듯이 어절 단위로 뒤섞기가 되지도 않는다.

#### (8) ㄱ. \*장미가 빨간 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

ㄴ. \*빨간 장미가 색이 예쁘게 아주 피었다.

ㄷ. 색이 아주 예쁘게 빨간 장미가 피었다.

결국 최소자립형식 위에는 어떠한 통사구조도 쌓을 수가 없음을 알 수 있

8) 부정 보조용언은 ‘-지 아니하다’이지 ‘않다’가 아님을 포착할 수 없음.

9) ‘겁을 먹다’ 전체가 ‘-로’ 논항을 가지는 용언 기능을 함을 포착 못 함.

10) 고영근·구본관(2008: 322)에서는 “어절은 체언에 조사가 붙은 발화시에 토막토막 떨어져 나오는 기식군(氣息群, breath group)이며, 이는 현행 맞춤법의 띄어쓰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또 같은 책(272)에서는 “어절이 문장 가운데서 차지하는 기능을 문장성분, 줄여서 성분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절에는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식군이고, 다른 하나는 띄어쓰기이다.

다. 정의가 모호한 어절도 통사단위가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정의로는 언중을 설득시키기 어렵다. 교육 현장의 국어교사들도 혼돈스러워한다. 통사론의 기본 단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 3.1.3. 提案

최소자립형식으로 국어의 단어를 정의할 수 없다는 위의 결론은 언어 유형적으로 孤立語나 屈折語와 다른 膠着語의 태생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言語 類型的 고려 없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조사와 어미를 교착적 성분, 즉 단어로 분리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sup>11)</sup>

## 3.2. 語尾의 文法 地位

### 3.2.1. 7차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

아래는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 「문법」의 ‘어미’ 부분 설명이다.

- (9)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語根)이라고 하며,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接辭)라고 한다. 가령, ‘치솟다’의 ‘솟-’은 어근이고, ‘치-’, ‘-다’는 접사이다. ‘치-’처럼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접사는 파생 접사라고 하고, ‘-다’처럼 문법적 지능을 하는 어미는 굴절접사라고 한다.

국어에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여 있어서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은 이들에 의해 실현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책을 읽었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조사 ‘가, 을’을 통하여 ‘철수’가 주어이고 ‘책’이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1) 자세한 논의는 후술 된다. 참고로 이러한 태도는 형태론에서 ‘어근’과 ‘어간’을 구별하는 아래 (1)과 같은 학교문법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1) ㄱ. 어근: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ㄴ. 어간: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고정된 부분 (교육인적자원부, 2002: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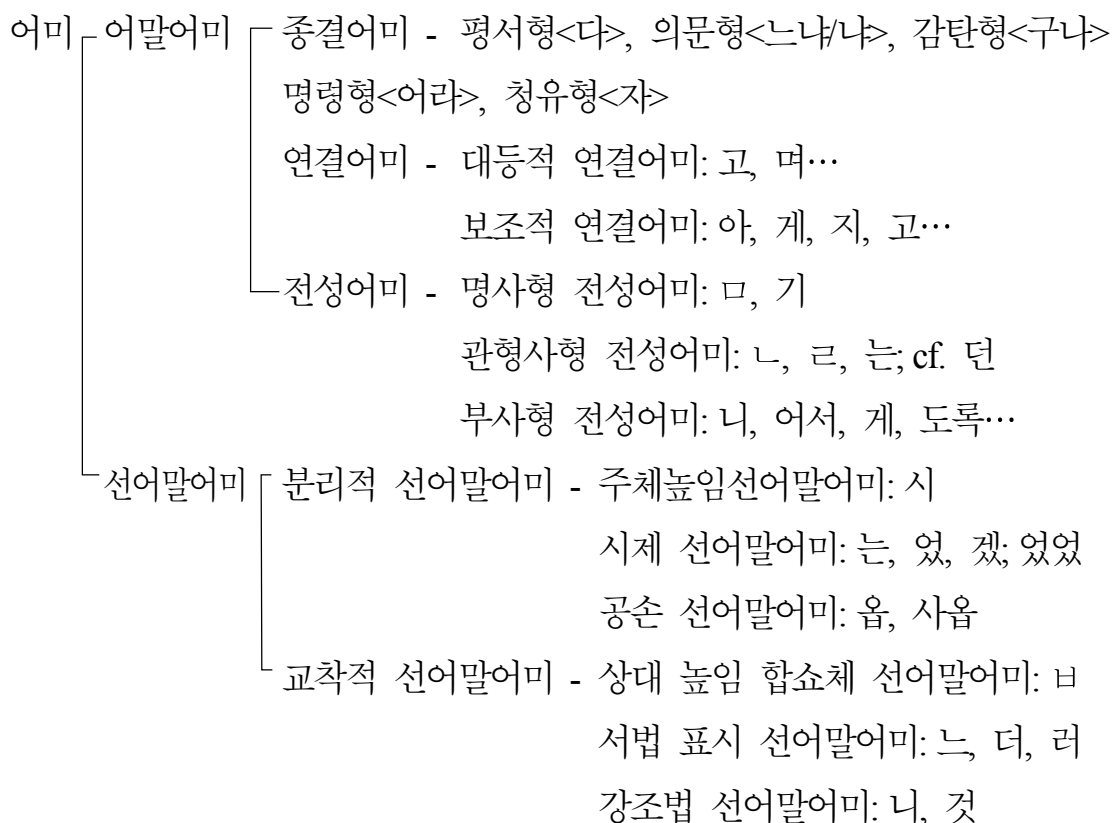
현행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울보’의 ‘울-’은 어근이고 ‘울다’의 ‘울-’은 어간이 된다. 그러나 ‘울보’의 ‘울-’과 ‘울다’의 ‘울-’이 동일한 실질의미를 갖는 형태소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본고에서처럼 어미를 단어로 보는 입장에서는, ‘울보’의 ‘울-’도 어근이고, ‘울다’의 ‘울-’도 어근이 된다. 용언만을 위해서 ‘어간’이라는 개념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가지로, 어미 ‘-었-’은 시제를 나타내며, 어미 ‘-다’는 문장이 평서문으로 종결됨을 나타낸다. 이렇게 국어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런 현상은 바로 국어의 첨가어적 특질을 잘 보여 준다. 여기서 첨가어(添加語)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를 가리키는데, 이를 교착어(膠着語)라고도 한다.

위 (9)는 한편으로 어미를 屈折接辭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어미가 교착어의 교착 성분임을 동시에 明示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는 교육인적자원부(2002 ㄱ)의 어미의 체계이다.

#### (9) 어미의 체계



#### 3.2.2. 문제점

국어 形態論이 어미의 처리 방식에서 한국어의 교착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西歐語, 특히 屈折語(融合語) 형태론의 용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어미의 통사적 특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sup>12)</sup>

먼저 격어미(곡용어미)의 언어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교착어인 터키어와 대표적인 굴절어인 러시아어를 비교해 보면(Comrie, 1989: 44),

(11) Turkish

	Singular	Plural
Nominative	adam <sup>13)</sup>	adam-lar
Accusative	adam-ı	adam-lar-ı
Genitive	adam-un	adam-lar-ın
Dative	adam-a	adam-lar-a
Locative	adam-da	adam-lar-da
Ablative	adam-dan	adam-lar-dan

터키어의 명사는 수(단, 복수)와 격에 따라서 접사 형태가 달라진다. 그러나 터키어의 접사는 거의 항상 분명하게 구별되며, 접사가 변이형을 가질 때에도 음성형식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이점은 아래 한국어 예와 별반 차이가 없다.

(12) 한국어

	단수	복수
주격	사람-이	사람-들-이
대격	사람-을	사람-들-을
속격	사람-의	사람-들-의
여격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처소격	사람-에	사람-들-에

12) 한국학술단체연합회(어문련)와 국립국어원 공동 주최 전국 학술대회(2015-10-16)에서 필자의 토론자인 임동훈 교수는 “굴절적(inflexional)이란 개념은 융합적(functional)이란 개념과 교착적(agglutinating)이란 개념을 포괄할 수 있다(Comrie, 1989).”고 보았다. 이러한 지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어가 교착어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국어는 교착적 정도가 훨씬 크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3) ‘man’

한편 대표적인 굴절어인 러시아어의 접사 결합 양상은 이와 많이 다르다. 러시아어도 數와 格에 따라서 격형태가 달라지지만, 접사에 수와 격의 두 가지 기능이 융합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가 없으며, 또 굴절형(Ia, II)에 따라서 수와 격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13) Russian

	Ia		II	
	Singular	Plural	Singular	Plural
Nominative	stol <sup>14)</sup>	stol-y	lip-a	lip-y
Accusative	stol	stol-y	lip-u	lip-y
Genitive	stol-a	stol-ov	lip-y	lip
Dative	stol-u	stol-am	lip-e	lip-am
Instrumental	stol-om	stol-ami	lip-oj	lip-ami
Prepositional	stol-e	stol-ax	lip-e	lip-ax

결국 體言의 屈折(러시아어)과 體言의 交着(터키어, 한국어)은 위와 같이 차이가 많아서 체언의 교착을 곡용이라는 용어로 명명하는 것은 국어의 교착적 특성을 굴절적 특성으로 오해시킬 소지가 많다.

국어의 어미가 통사적 단위임을 지지하는 증거로 우순조(1977: 233~244)에서는 아래와 같은 語彙的 凝集性 진단을 소개하고 있다.

(14) ㄱ. \*Mary out[ran and -swam] Bill.

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마무리해라. - 대등접속 가능

(15) ㄱ. 형이 장난감을 망가지-게 했어요.

ㄴ. 네가 장난감을 이렇게 했니? - 어휘 내부 결속 가능

(16) ㄱ. [VP 냄새도 향기롭]-게 백합이 피었다. - 구절적 귀환성

ㄴ. \*[AP quite happi]-ness

(17) 어머니는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으시느라 바쁘시다. - 공백화 가능

14) 'table'

(14)에서 영어는 접두사 ‘out’의 내부 성분 사이에 통사적 단위인 ‘and’가 삽입될 수 없지만, 국어는 어미 ‘-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의 ‘-게’ 구성에 삽입될 수 있으므로, 부사절 연결어미 ‘-게’는 형태적 단위가 아니라 통사적 단위임을 알 수 있다. (15) ‘망가지-게’에서 ‘-게’의 내부 성분이 ‘이렇-’으로 결속될 수 있는 것을 보면 ‘-게’는 통사적 단위임을 알 수가 있고, (16)에서 ‘-게’ 구성의 내부 성분이 VP(‘냄새도 향기롭-’)를 형성하는 것도 ‘-게’ 구성이 통사적 단위임을 보여준다. (17)에서 [Ø 전을 부치고, Ø 송편을 빚으시느라] 공백화가 가능한 것도 연결어미 ‘-느라(고)’가 통사적 단위임을 보여준다.

### 3.2.3. 提案

曲用과 活用이라는 용어는 조사 결합과 어미 결합을 단어 형성, 즉 형태적 현상으로 파악한다는 뜻이다. 즉 곡용(‘눈이 예쁘다’의 ‘눈이’)과 활용(‘먹는다’)의 결과물이 단어이며, 그것이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조사나 어미는 단어가 아니라 구나 절에 결합한다. 예를 들어 ‘먹는다’가 단어라면 ‘먹히다’라는 피동동사(이것도 단어임)는 기존 단어 ‘먹는다’에 피동접사가 결합하여 ‘먹는다히’가 되어야 맞다. 왜냐하면 현 학교문법 체계에서 의존형식인 ‘먹-(어근)’은 단어가 아니므로 저장될 수 없고 오직 ‘먹는다’만이 어휘부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동접사 ‘-히-’는 ‘먹는다’가 아니라 ‘먹-’에 바로 결합한다. 그리고 ‘-는다’는 ‘먹-’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철수가 밥을 먹]-는다’로 분석되어 절에 결합하는 서법 성분으로 보는 것이 더 직관에 맞다. 즉 ‘먹는다’의 ‘-는다’는 ‘먹는다’라는 단어 내부 성분이 아니라 통사 구성인 [철수가 밥을 먹]-는다’의 절 성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는다’가 단어 형성 과정이 아니라 절 형성 과정, 즉 통사 현상임을 뜻한다. 결국 국어의 조사, 어미는 형태론적 현상인 곡용, 활용이 아니다. 오히려 어휘부에 단어로 존재하는 것은 의존형식인 ‘먹-’과 어미 ‘-는다’<sup>15)</sup>이다, 의존형식인 ‘먹-’과 ‘-는다’를 모두 단어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16)</sup>

15) 물론 ‘-는다’는 ‘느’와 ‘-니다’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국어 어미가 굴절접사가 아니라면, 전통적으로 써 오던 굴절접사라는 말 대신 교착접사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현재 ‘어미’라는 용어가 굴절어미, 활용어미, 곡용어미에 모두 사용되고 있으므로 활용어미만을 따로 ‘어미’라고 명명하고, 곡용어미는 ‘조사’로 별칭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즉 活用 conjugation과 曲用 declension도 교착어인 국어에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sup>17)</sup>

명칭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助詞’라는 말이 교착성분의 대표어로 쓰여 왔던 점을 고려하여, 활용어미 대신에 용언조사, 곡용어미 대신에 체언조사를 사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18)</sup> 전통적으로 쓰여 왔던 조사의 고유어 대응어인 토를 활용하여, 체언토, 용언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다만 이 경우는 다른 품사 명에는 ‘-사’가 붙었는데, 여기서서는 그게 빠지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조사는 그대로 두고, 어미만을 토 혹은 토씨라고 부르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것은 조사와 어미가 갖는 문법 기능 요소로서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느낌이 든다.

결국 어미의 통사 단위를 인정하고, 절충식 단어 정의에서 조사(附加語<sup>19)</sup> 처리)와 어미(統辭核으로 인정)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는 분석적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 아래는 용언조사(어미)의 품사 명칭을 수정 提案한 것이다.<sup>20)</sup>

16)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매우 유사한 주장이 우순조(2015: 112)에도 보인다. 그는 국어 ‘활용’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활용 개념에 입각한 기존의 분석을 따르자면 ‘먹다’ 전체를 하나의 어휘로 간주하게 되므로 ‘먹다’에서 파생된 ‘먹히다’가 ‘먹다’에 접미사가 붙은 형태라고 말할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이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문제가 있다. 교착어이면서 굴절적 요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현실에 더 합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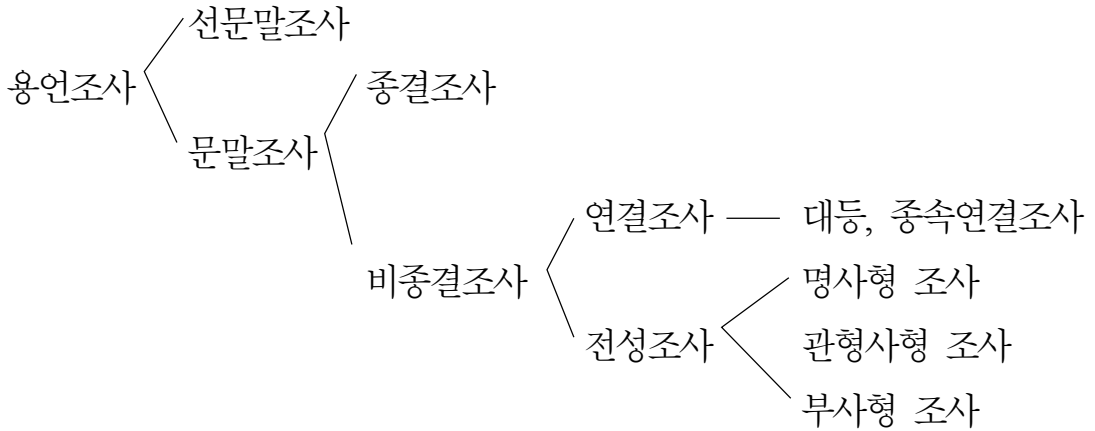
17) 최형용(2013: 60~70)에는 조사, 어미의 처리가 굴절의 인정과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적 특수성’을 다루면서 한국어의 조사, 어미를 독립된 단어(문법적 단어<sup>2)</sup>)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18) 고창수(1985: 11)에서는 ‘체언 접미사’, ‘용언 접미사’라는 용어가 쓰였다. 임홍빈(1997)의 교착소도 학계에서 널리 쓰였으나, 필자는 조사라는 통용어를 버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19) 이에 대해서는 5장 격조사의 인정 여부, 예문 (17)에서 설명.

20) 위 (18)의 주장은 원래 줄고(2015ㄱ, 120)에 의한 것임을 밝힘.

(18) 용언조사(어미)의 분류



### 3.3. 品詞와 單語의 差異

#### 3.3.1. 7차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

학교문법에서 품사는 단어를 그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이다. 또 “단어가 문장 내 자립 여부에 따른 동적인 용어임에 비하여, 품사는 이 단어를 독립적으로 바라 본 정적인 용어(이관규, 2004: 121)”이다.

세부적으로 학교문법의 품사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첫째, 形態(form)는 품사의 형태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분류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가 불변어, 동사, 형용사가 변화어이다. 둘째, 機能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언,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가 될 수 있으므로 용언, 관형사, 부사는 후행 성분을 수식하므로 수식언이다. 셋째, 意味的 기준은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따른 하위분류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가변어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서술격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표 1〉 학교문법의 품사 분류(9 품사)

3.3.2. 문제점

형태적 기준에 의하면 단어는 不變化語와 變化語로 양분된다. 그러나 불변화어와 변화어는 9품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슷한 논리로, 의미적 기준에 의하면 명사는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普通名詞와 固有名詞는 9품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품사가 어느 한 가지 기준의 적용 결과가 아니라 ‘형태->기능->의미’ 기준의 순차적 적용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태적 기준을 일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변화어도 변화어도 아닌 조사와 어미는 그 분명한 통사적 기능(통사원자)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품사 분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남윤진(2000)에서는 조사의 여러 가지 특징을 들고 어미와의 차이점은 앞말의 자립성 여부뿐이고 나머지 특징은 어미와 동일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 밖에도 ‘-르 수 없.’(능력 부정)과 같은 양태 기능어들도 품사 분류에서 제외되었으며, ‘-지 아니하.’와 같은 부정어(보조용언)가 그 분명한 통사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어미라는 이유로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 하나의 단어(‘형용사’)인 ‘깨끗도 하.’가 내부 성분(어근)이 분리된다는 이유로 품사 명칭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결국 최소자립형식을 토대로 한 단어 개념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단어를 독립적으로 갈래지었다는 품사 개념 역시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3.3.3. 提案

단어는 통사부에 넘겨주고 통사부에서 자립적으로 정의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의존성 여부와 의존 관계에서 나타나는 형태 변화만 형태론의 關與 사항이 된다. 품사도 문장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단어가 아니라) ‘어휘부(사전)의 어휘(올림말)를 그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으로 정의하면 混亂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품사를 part-of-class (sentence)로 보지 않고 word-class로만 해석한 것이다.<sup>21)</sup>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졸고(2015ㄱ, 117)에서 문장성분, 단어, 품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 바 있다.

- (19) (기능적) 단어의 정의  
문장성분을 표현하는 품사(들)의 묶음(Class)
- (20) 품사의 정의  
(기능적) 단어의 어휘부 명칭

품사를 위에서처럼 단어의 어휘부 명칭으로 보면 품사는 아래 <표2>처럼 기존 9품사 외에도 接辭나 語尾, 一般名辭, 固有名詞, 自立名詞, 依存名詞, 人稱代名詞, 指示代名詞 등의 모든 올림말의 갈래 정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22)</sup>

품사	하위 품사	품사	하위 품사
명	명일반	관	
	명고유	부	
	명자립	감	
	명의존	조	
대	대인칭	접	접두

21) 이선웅·이은섭(2013: 262)에서도 품사론이 통사론이나 형태론에 한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품사론은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의미·화용론의 여러 지식들에서 추출된 특성을 근거로 분류된 분야로서 엄밀한 학문적 독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22) 품사에 관한 최근의 종합적인 논의로는 졸고(2011), 최형용(2013: 146~173)가 있다.



	대지시		접미
수	수	끝	끝중
동	동자		끝연
	동타		끝전
	동보		끝전
형	형보	무품사어	

〈표 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품사 유형과 표지

단어의 정의를 통사부에 넘겨준다는 말은 단어(통사원자)를 문장성분의 최소 단위로 다시 설정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周知하듯이 널리 알려진 문장성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21) {  
  주성분 -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속성분 -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 - 독립어

그런데 본고에서는 조사, 어미를 단어로 보았으므로 이들을 문장성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는 본고의 提案이다.

- (22) {  
  주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양태어<sup>23)</sup>(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sup>24)</sup>(어미), 전성어(어미)  
  부속성분: 관형어, 부사어, 조사  
  독립성분: 독립어

또, ‘-르 수 없-’, ‘깨끗도 하-’ 등도 문장 내 기능적 단어 역할을 하므로, 이들을 모두 반영한 ‘기능적 단어’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한 상세한

23) 본고의 ‘양태 modality’는 서법, 시제, 상, 높임법, 부정법, ‘-어 보다’와 같은 보조 용언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대범주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범주 용어가 필요한 데, ‘양태’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 고심 끝에 ‘양태’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24) ‘연결어’는 ‘접속어’와 같은 개념으로 쓴다. 따라서 연결어미는 접속어미와 같다.

논증은 줄고(2015ㄱ)에 있다. 그 핵심은 단어 분류의 여러 가지 기준 중 기능([분포+의미])을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분포와 의미를 기준으로 취하지 않은 이유는, 분포는 ‘-ㄴ 수 없-’, ‘깨끗도 하-’, ‘접을 먹-’ 등의 덩어리 문장성분을 포착하지 못하며, 의미는 분포와 결합하여 문장의 체계(system) 안에 편입되어야만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

절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격어	양태어	연결어, 전성어	양화조사 <sup>25)</sup>
구	명사구	서술구	관형구	부사구	조사구	양태구	연결구, 전성구	보조사구
기능적 단어	체언	용언 (동사, 형용사)	관형어	부사어	체언 조사 <sup>26)</sup>	양태(선문말조사, 종결조사)	연결조사, 전성조사	보조사

〈표 3〉 국어의 문장성분과 기능적 단어

3.4. 格助詞의 認定 與否

3.4.1. 7차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ㄱ」)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格助詞, 接續助詞, 補助詞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격조사는 體言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하도록 해 준다. 격조사는 다시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로 나누어진다(이관규, 2004: 138).<sup>27)</sup>

3.4.2. 문제점

격조사 중 주격 ‘이/가’, 목적격 ‘을/를’, 보격 ‘이/가’, 관형격 조사 ‘의’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선행명사(구)에 문법적 격(格, case)을 부여하지 못한다.

25) 보조사는 자신이 수식하는 현 성분(예, ‘철수도 왔다.’의 ‘철수’)과 그 대안 성분(‘철수’ 이외에 온 사람) 사이에 일정한 의미적 관계가 작용하는 양화 영역을 제공하는 조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동훈(2014) 참조.  
26) 부사격조사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격조사를 보조사로 본다.  
27) 서술격조사 ‘이다’는 후술함.

만약 격조사가 선행 명사(구)에 문법적 격을 줄 수 있는 格賦與者(case assigner)라면, 그것이 생략되었을 때, 그 補充語인 선행명사(구)도 생략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래 (24)의 선행명사(구)들은 격조사 생략 후에도 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격을 부여하는 것은 격조사가 아니다.

- (24) ㄱ. 엄마Ø 어디 가셨니?  
 ㄴ. 너 똥Ø 먹을래?  
 ㄷ. 이런 놈은 사람Ø도 아니다.  
 ㄹ. 선생님Ø 댁에 가 봤니?

그러므로 격조사는 격부여자는 될 수 없고, 附加的(adjunct)으로 격을 표시하는 格標示者(case marker)가 될 가능성은 있다. 즉 국어의 격조사는 ‘명사(구)+조사’의 문법범주를 결정해 주는 통사핵이 되지 못하고 선행 성분의 부가어로만 기능한다.

한편 격표시자로도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격조사가 다음과 같은 보조사적 의미(‘고석주의 선택지정’)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sup>28)</sup>

- (25) ㄱ. 요즘은 대학에서 아무{-\*를/\*Ø}나 뽑는다. (고석주, 2004, 2008)  
 ㄴ.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을 하나{-\*Ø/\*를} 보지 못했다.  
 ㄷ. 우리는 애는 수학{-을/\*Ø/\*는/\*도} 가장 잘 해.  
 ㄹ. 저 나이에 무엇{-을/\*Ø/\*은/\*도} 못 먹겠어.  
 ㄹ. 그 남자가 술{-을/\*Ø/\*은/\*도} 하나, 담배{-를/\*Ø/\*은/\*도} 하나, 도박{-을/\*Ø/\*은/\*도} 하나? (안 만나겠다는 이유가 뭐냐?)

### 3.4.3. 提案

언어 유형론적으로 볼 때 격의 실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송경안/이기갑, 2008).

28) 자세한 논증은 고석주(2004, 2008) 참조.

- (26) ㄱ. 어순(word order)  
 ㄴ. 명사구 표지(NP marking)  
 ㄷ. 교차지시(cross-reference)

이 중 명사구 표지에 의한 격 실현은 아래 (27), (28)처럼 격어미(곡용어미)에 의한 방법과 附置詞 adposition에 의한 방법이 대표적이다.

(27) 격어미에 의한 격 표시(대표적인 굴절어인 라틴어 예(송경안/이기갑, 2008: 16))

- ㄱ. Puell-a                ven-it.  
      girl-NOM        came-3.SG  
      ‘The girl came.’  
 ㄴ. Puell-a                vid-it                puer-um  
      girl-NOM        saw-3.SG        boy-ACC  
      ‘The girl saw the boy.’

(28) 후치사에 의한 격 표시 (Warlpiri어) (송경안/이기갑, 2008: 17)

- ㄱ. Kurdu-ngku    ka        maliki        wita-ngku        wajilipi-nyi  
      child-ERG    PRES dog(ABS) small-ERG        chase-NONPAST  
      ‘The samll child is chasing the dog.’  
 ㄴ. Wajilipi-nyi    ka        wita-ngku maliki        kurdu-ngku  
      chase-NONPAST PRES samll-ERG dog(ABS)        child-ERG  
      ‘The small child is chasing the dog.’  
 ㄷ. Maliki                ka        kurdu-ngkuwajilipi-nyi        wita-ngku  
      dog(ABS)        PRES child-ERG chase-NONPAST        samll-ERG  
      ‘The samll child is chasing the dog.’

이러한 곡용어미는 명사의 일부를 이루면서 경우에 따라 명사로부터 분리도 가능하지만, (국어의 격조사와 달리) 생략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철저히 의존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곡용어미를 명사와 분리시켜서 부치사라 부르지

는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조사는 곡용어미가 아니다.

다른 代案은 한국어의 조사를 부치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부치사와 선행명사와의 결합 정도는 언어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부치사가 아래 (29)처럼 좌초되어 선행명사구와 분리될 수도 있지만, 한국어에는 이런 경우는 없다.

(29) ㄱ. What was she referring to \_\_\_\_\_?

ㄴ. This is the book she was referring to \_\_\_\_\_?

부치사는 ‘명사로 하여금 문장 내에서 다양한 문법적 역할을 부여’하는 격부여자 역할을 담당한다. 국어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부사격 조사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 ‘를’, ‘의’를 부치사(부사격조사)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천적으로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격조사는 부치사의 일종으로, 생략이 가능한 ‘가’, ‘를’, ‘의’는 (특정 의미를 갖는) 보조사<sup>29)</sup>로 처리하는 길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다. 국어의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문장성분의 자격은 격조사가 아니라 서술어의 의미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言語 類型的으로 普遍的(canonical)이기 때문이다.

### 3.5. 主語의 定義

#### 3.5.1. 7차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 ㄱ」)

학교문법에서 主語는 문장에서 動作 또는 狀態나 性質의 主體를 나타낸다. 주어는 주격조사 ‘이/가’, ‘께서’가 붙어 나타나는데, 때로는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ㄱ」). 유현경(2014, 178)에서도 “주어는 아래 (30)에서처럼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 상태, 지정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체언 및 체언 자격을 갖는 요소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짐이 보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9) 보조사는 의미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함.

- (30) ㄱ. 순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다. (동작)  
 ㄴ. 순희 어머니가 아프시다. (상태)  
 ㄷ. 순희 어머니가 환자시다. (지정)  
 ㄹ. 순희도 입원했음이 밝혀졌다. (명사절 주어)

### 3.5.2. 문제점

“주어는 주격조사 ‘가’가 결합하여 이루어짐이 보통이다.”라는 말은 아래 (31)에서 보듯이 ‘가’의 결합이 밀줄 친 선행 명사를 주어로 정의해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을 주어가 아니라고 말 할 수도 없다.

- (31) ㄱ. 너 어디 아프니?  
 ㄴ. 철수도 농구를 좋아하니?  
 ㄷ. 할머니께서 우리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다.  
 ㄹ. 당국에서 때마침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주어를 주격조사에 의지하여 정의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 소위 ‘주체 존대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를 통한 주어 검증에도 문제가 있다.

- (32) ㄱ. 친구 분께서는 댁이 머신가요?  
 ㄴ. 당신께서는 방 안 공기가 탁하시죠?  
 ㄷ. 선생님에게 돈이 있으시다.  
 ㄹ. 할머니께 자식이 많으셨다.  
 ㅁ. 형님이 키가 크시다.  
 ㅂ. 아저씨께서는 성격이 좋으시다.  
 ㅅ. 갈비탕이 누구시지요?  
 ㅇ. 김 선생님의 건강이 안 좋으시다.  
 ㅈ.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4500원이세요.

위 (32 ㄱ)은 ‘댁’의 소유자인 ‘친구 분’을 간접적으로 존대한 間接尊待의

예, (32ㄴ)은 주어가 아니라 주제와 일치하는 예. (32ㄷ, ㄹ)은 여격 주어, (29ㄱ, ㄴ)은 주격 중출 구문의 선행명사와 일치하는 예, (32ㄷ)은 ‘이다’ 구문의 주어, (29ㅇ)은 ‘-시-’가 관형어 성분을 존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32ㄷ)은 청자 대우 용법으로 과잉 적용된 예이다. 그러므로 -시-와 일치 관계를 맺는 문장성분을 일률적으로 주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존칭]의 의미를 가지는 성분이 주어가 되면(예, ‘철수가 왔다.’) ‘-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주어 點檢者로서 불충분한 부분이다.<sup>30).31)</sup>

### 3.5.3. 提案

언어 유형론에서는 주어, 목적어를 서술어가 표현하는 敘述語의 一般化

30) 그 밖에도 재귀대명사 ‘자기’에 의한 검증, 관계관형절의 핵명사 되기 검증, 주제화 제약, 등의 검증 방법이 쓰일 수 있으나, 이들은 주어만을 검증하는 기준으로는 쓰일 수 없다 (줄고, 2013ㄱ: 206) 참조.

31) 이중주어는 선행명사가 후행명사의 의미적 논항일 때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술어의 논항 숫자를 기준으로 이중 주어나 이중 목적어 구문을 검토해 보면, 어휘층위 논항과 통사층위 논항 사이에 자릿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아래 (1)이 그러한 예이다. (1ㄱ)에서 서술어 ‘아프다’는 1항 논항(‘철수의 아버지’)을 갖지만, 동일한 서술어 ‘아프다’가 (1ㄴ)에서는 ‘철수’와 ‘아버지’의 2개의 논항을 갖는다.

(1) ㄱ. 철수의 아버지가 아프시다.

ㄴ. 철수가 아버지가 아프시다.

그런데 거의 같은 관형격 구문인데, 아래 (2ㄴ)에서는 이중 주어 구문 형성이 제약된다. 왜 그럴까? 장소 명사 ‘고향’을 시간 명사 ‘10년 전’으로 바꾼 (3ㄴ)도 마찬가지다.

(2) ㄱ. 고향의 아버지가 아프시다.

ㄴ. \*고향이 아버지가 아프시다.

(3) ㄱ. 10년 전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 왔다.

ㄴ. \*10년 전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 왔다.

본고는 (1)과 (2-3)의 불평행 관계가 ‘아버지’라는 관계 명사의 논항 구조, 특히 보충어와 부가어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아래 (4ㄴ), (5ㄴ), (6ㄴ)처럼, (2-3)의 ‘아버지’를 보통 명사인 ‘경치’로 바꾸면 이중 주어 구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ㄱ. 고향의 경치가 아름답다.

ㄴ. 고향이 경치가 아름답다.

(5) ㄱ. 10년 전의 경치가 더 아름다웠다.

ㄴ. 10년 전이 경치가 더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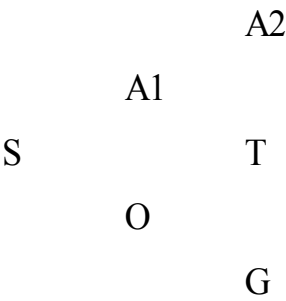
(6) ㄱ. 10년 전의 고향의 경치가 더 아름다웠다.

ㄴ. 10년 전이 고향이 경치가 더 아름다웠다.

위의 예들은 이중 주어 구문 형성이 선행명사가 후행명사에 의미적으로 의존(논항관계)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진짜 주어는 후행명사임을 보여준다 (줄고, 2013ㄴ: 371).

된 論項 意味役 generalized argument roles 에 기대어 정의한다.

(33) 서술어의 ‘項價’와 일반화된 논항의 의미역



위에서 서술어의 일반화된 논항 의미역이란 서술어의 논항을 출현하는 자릿수를 기준으로 배치시킨 결과이다. 최대 삼항까지를 가정한다. {S}는 일항 서술어의 유일한 논항, {A1}은 이항 서술어의 행위자역에 가장 가까운 논항,<sup>32)</sup> {O}는 행위자역에서 가장 먼 논항이 된다. 삼항 서술어의 경우는 행위자역에 가장 가까운 논항이 {A2}, 피해자역에 가장 가까운 논항이 {T}, 나머지 논항이 {G}가 된다.

이에 따르면 국어의 주어는 일항 서술어의 유일 논항 {S}, 이항 서술어의 행위자역(에 가장 가까운) 논항 {A1}, 삼항 서술어의 행위자역(에 가장 가까운) 논항 {A2}가 된다.<sup>33)</sup>

(34) 국어의 주어: {S, A}

3.6. 目的語의 定義

3.6.1 7차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

학교문법에서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성분(「교육인적자원부, 2002」)이다. 또 목적어는 서술 작용의 대상이 되는 성분으로 아래

32) 행위자역에서 가장 가까운 논항은 행위자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대역(Macroroles) 또는 원형역(Proto-roles)을 말하는 것임.

3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줄고(2013) 참조.



(35)에서 보듯이 타동사 구문에 나타나며, 체언이나 체언 자격을 갖는 요소와 목적격 조사 ‘을/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는(유현경, 2015: 181).

- (35) ㄱ. 어머니는 과일을 꺾었다.  
 ㄴ. 장발장이 은춧대를 훔쳤다.  
 ㄷ.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 3.6.2. 문제점

주어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 ‘를’의 결합이 선행 명사를 목적어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를’이 생략되어도 목적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36) ㄱ. 나는 과일을 좋아해. ㄴ. 난 과일 좋아해. ㄷ. 나는 과일도 좋아해.  
 (37) ㄱ. 아비를 보라 가니, 어미도 못 보아.  
 ㄴ. 우리도 어머님을 못 뵈었습니다.  
 영이가 사과를 두 개를 먹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를’의 의미에 대한 수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이제는 목적어를 형태 ‘를’에 의존하여 정의하는 방법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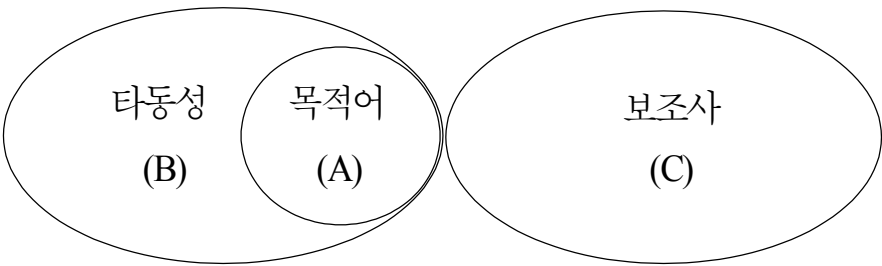
그 보다는 ‘他動性(transitivity)’이라는 의미적 특징을 표시하는 보조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필자는 줄고(2015ㄴ)에서 조사 ‘를’과 관련하여 이것이 목적어 표지가 아니라 ‘타동성’의 의미 자질을 표시하는 타동성 표지이며, 동시에 한정성<sup>34)</sup>, 특정성<sup>35)</sup>, 선택지정<sup>36)</sup>과 같은 보조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즉, 넓게 보아 [타동성 또는 특정성]을 표시하는 보조사로 본 것이다.

34) 목정수(1998)

35) 줄고(2012, 2013ㄴ)

36) 고석주(2004)

(38) 그림 1, 조사 ‘를’의 출현 환경 (A+B+C)



- (A) - 참여자 논항 {O, T}
  - (B) - 참여자 논항 {O, T} 이외의 타동성 자질
  - (C) - 한정성, 특정성 등
- (단, 주어는 ‘를’의 출현 환경에서 제외 됨)<sup>37)</sup>

(39) 타동성의 정의

: 한 문장에서 서술어로 표현된 행위의 영향이 그 문장의 참여자 논항이나 부가어에 미치고 있음을 가리키는 의미적 관계

(41)

	타동성	자동성 (비타동성)
참여자	둘 이상의 참여자	하나 이상의 참여자
A의 행위자성	영향력이 높은 A	영향력이 낮은 A
O, T의 피영향성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음, 형태상의 변화를 입음, 외연적/물리적	영향을 받지 않음, 형태상의 변화를 입지 않음, 속성적/심리적
동작성 <sup>38)</sup>	동작	비동작
의지	의지적	비의지적
종결성(telic)	종결	비종결



<표 4> 국어 타동성 자질의 종류와 중요성 위계

37) 주어는 타동성뿐만 아니라 자동성 구문에서도 실현되므로, 타동성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님. 따라서 주어에 실현되는 조사 ‘가’는 타동성과 무관함.

38) ‘동작성’이란 서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영향이 하나의 참여자로부터 다른 참여자 (혹은 부가어)로 쉽게 전이되는 것을 말함.

그리고 아래는 타동성의 예들이다. 먼저 (40)은 타동성의 일종인 의도성 유무에 따른 ‘를’과 ‘이’의 交替를 보여 준다.

- (40) ㄱ. 그림을 보았다. / 음악을 들었다. (연재훈, 1997: 122)  
 ㄴ. 그림이 보였다. / 음악이 들렸다.

아래 (41 ㄱ)에서는 ‘옷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벌레’의 의도성이 느껴지지만, (41 ㄴ)에서는 현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42 ㄱ)과 달리 (42 ㄴ)에서는 타동성 의미가 분명한 ‘먹-’ 뒤에 조사 ‘가’가 결합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 (41) ㄱ. 벌레가 옷에서 떨어지지를 않는다. (신서인, 2014)  
 ㄴ. 벌레가 옷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다.  
 (42) ㄱ.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음식을 많이 먹지를 않는다. (신서인, 2014)  
 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음식을 많이 먹지-\*가 않는다.

그리고 ‘실수로’와 같은 부사어를 통해 의도성을 제거한 (43)과 같은 장형 不定文에 ‘를’이 결합하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 (43) ㄱ. 그는 실수로 그 말을 전하지-??를 않았다.  
 ㄴ. 그는 실수로 약속 장소에 나가지-??를 않았다.

한편 아래 (44 ㄱ)은 타동성의 일종인 ‘終結性(telic)’의 유무에 따라서 ‘를’의 결합이 자연스러워 지는 예이다. (44 ㄴ)의 ‘에서’는 그러한 종결성이 감지되지 않는다.

- (44) ㄱ. 영수가 복도를 달렸다.  
 ㄴ. 영수가 복도에서 달렸다.

마지막으로 아래 (45)는 타동성의 일종인 ‘先行名詞의 被影響性(affectedness) 有無’로 목적어가 결정되는 예이다. (45ㄱ)은 ‘영희’와 ‘손’이 모두 타동성의 영향을 받았지만, (45ㄴ)은 ‘영희의 책’만 영향을 받고 ‘영희’는 직접적으로 타동성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된다.

- (45) ㄱ. 나는 영희를 손목을 잡았다.  
      ㄴ. ?나는 영희를 책을 받았다.

3.6.3. 提案

언어 유형론에서는 주어, 목적어를 서술어가 표현하는 서술어의 일반화된 논항 의미역(generalized argument roles)에 기대어 정의한다.

- (46) 서술어의 ‘項價’와 일반화된 논항의 의미역
- |   |    |   |
|---|----|---|
|   | A2 |   |
|   | A1 |   |
| S |    | T |
|   | O  |   |
|   | G  |   |

이에 따르면 국어의 목적어는 이항 서술어의 行爲者役(agent)에서 가장 먼 논항 {O}. 삼항 서술어의 被害者役(patient)에 가장 가까운 논항이 {T}가 된다.<sup>39)</sup>

- (47) 국어의 목적어: {O, T}

3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졸고(2015ㄴ) 참조.

### 3.7. 補語의 定義

#### 3.7.1. 7차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

보어(補語, complement)는 서술어의 주체인 주어와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 이외에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주성분이다. 그런데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48ㄱ, ㄴ)에서 보듯이 ‘되다, 아니다’와 같은 불완전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얼음이, 학생이’만을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48) ㄱ. 물이 얼음이 되었다.

ㄴ. 그는 학생이 아니다.

#### 3.7.2. 문제점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48)만을 보어로 인정하고, 아래 (49)의 ‘얼음으로, 학교에, 영수에게, 어머니와’는 모두 必須的 부사어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사어는 主成分이 아닌 付屬成分이라는 기본적인 정의를 어겨 가면서까지 ‘필수적 부사어’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얼음이, 학생이’처럼 보어로 보면 된다. 보어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반드시 요청되는 필수적인 주성분이다(이관규, 2004: 245).”

(49) ㄱ.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ㄴ. 나는 학교에 갔다.

ㄷ. 선생님께서 영수에게 상을 주었다.

ㄹ. 선희는 어머니와 닮았다.

한편 유현경(2013: 16)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어의 擴大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보어를 요구하는 용언은 ‘되다, 아니다’ 외에 心理形容詞와 같은 형용사 部類와 일부의 自動詞가 있다. 이들은 주어 이외에 논항을 하나 더 요구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이들은 서술어가 되는 용언이 두 개의 필수적인 논항을 요구하는 단문이므로 敘述節을 가진 구문이라고도 할 수

없다.”

(50) 보어를 요구하는 용언

- ㄱ. 철수가 선생님이 되었다.
- ㄴ. 철수가 범인이 아니다.
- ㄷ. 철수가 범인이 맞다.
- ㄹ. 아기 코끼리가 1톤이 나간다.
- ㅁ. a. 철수는 호랑이가 무섭다.  
b. 나는 술이 좋다 (싫다)

이에 추가하여 유현경(2013: 186)에서는 보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51) ㄱ. 조사 ‘이/가’가 붙는다. 40)

- 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 ㄷ. 의미적인 기능은 서술의 대상이다.
- ㄹ. 관계관형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 ㅁ. 결합되는 조사 ‘이/가’는 생략이 가능하다.

### 3.7.3. 提案

형태적으로 ‘이/가’만을 보격조사로 부르는 것은 補語가 서술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原則을 毀損시킨다. 서술어와 서술어에 의해서 요구되는 문장성분으로 보어가 결정된다는 원칙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또 ‘이/가’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이/가’의 결합만으로 선행명사를 보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sup>41)</sup>

40) 유현경(2013)에서는 ‘이/가’가 붙는 성분만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

41) 한국학술단체연합회(어문련) 발표(2015.10.16)에서 토론자인 임동훈 교수는 ‘철수는 시골(에) 갔어.’와 ‘평화\*(의) 종소리처럼 처소격 조사도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관형격 조사도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시골(에)‘의 ‘에’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보격조사로 본다. 즉 형태 ‘이/가’만 보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술

예컨대, ‘영희는 어머니와 닮았다’에서 서술어 ‘닮다’는 ‘어머니와’를 항상 필수 논항으로 요구한다. ‘닮다’의 입장에서 ‘어머니와’가 수의 성분인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서술어 ‘닮다’의 입장에서 ‘어머니와’는 必須成分인 보어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서술어에서라면, (예) ‘영희는 아직 어머니와 살고 있다’에서, 부사어로 쓰였을 성분이 ‘닮다’에서는 필수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설명은 ‘닮다’의 입장에서는 무관한 일이다. 즉 필수적 부사어는 해당 서술어와의 관련성에서 보면 모두 보어이다. ‘와’라는 형태가 아니라 서술어와의 기능적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성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보어의 必須性을 語彙意味的으로 판단해야지 형태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액자가 한쪽으로 기울다.’에서 ‘한쪽으로’는 보어지만, ‘해가 동쪽으로 기울다.’의 경우 ‘동쪽으로’는 보어가 아니다. 형태는 같지만 전자의 사전 어휘의미는 ‘비스듬하게 한쪽이 낮아지거나 비뚤어지다’이고, 후자의 어휘의미는 “해나 달 따위가 지다”로 ‘방향’ 성분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sup>42)</sup>

그리고 文章成分(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과 의미격조사(行爲格, 對象格, 與格, 處所格, 向格, 共同格, 道具格 등)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의미격조사는 格形態의 의미적 분류이므로, 개별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는 문장성분과 일치하지 않는다.<sup>43)</sup> 다만 조사 중에는 ‘되다’, ‘아니다’의 ‘이/가’처럼 보어로만 쓰이는 것이 있고, ‘닮다’, ‘살다’의 ‘와’처럼 보어(=필수적 부사어)와 부사어 양쪽으로 쓰이는 것도 있을 뿐이다. 유현경(2013: 160~161)에서는 전자만 보어로 인정하고, 후자는 필수적 부사어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어의 문장성분 중에 ‘필수적 부사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자동사)의 필수 논항 여부가 보어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의 종소리’에서 ‘의’가 생략되지 않는 것은 보조사 ‘의’의 의미 때문으로 보았다. 줄고(2012) 참조.

42)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이분법이 아니다. 의미는 원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히려 의미에서 엄격한 이분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43) 예를 들어, 같은 대상격(theme)인데 ‘철수가 범인을 잡았다.’의 ‘범인은 목적어로 ‘범인이 잡혔다.’의 ‘범인’은 주어로 실현된다.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주어, 목적어가 아닌 필수 문장성분을 모두 보어라고 부르는 방법과 주어가 아닌 필수 문장성분 중 타동사의 것을 간접목적어, 자동사(형용사)의 것만을 보어라는 부르는 방법이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주다’ 동사의 ‘에게’ 논항을 간접목적어로 처리하고, 보어와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후자라면 ‘에게’ 논항을 보어라고 불러야 한다.

국어의 보어 개념이 주어, 목적어처럼 연역적 개념이 아니고 귀납적(또는 餘他的) 개념(A가 아닌 나머지)인 점을 고려하면 ‘에게’ 논항을 보어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그러면 여전히 歸納的 정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주어가 아닌 필수 성분 중 타동사의 것을 목적어, 자동사(형용사 포함)의 것을 보어라고 부르면, ‘에게’ 논항을 타동사의 간접목적어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보어를 자동사에 한정시킬 수 있다. 후자 쪽이 귀납적 개념(A가 아닌 나머지)을 일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 (52) 보어의 정의

- 주어가 아닌 서술어의 필수 성분 중 타동사의 것을 (직접, 간접) 목적어, 자동사의 것을 보어라고 한다.
- 주어, 목적어, 보어는 의미역 위계에 따라 이 순서대로 결정된다.

### 3.8. ‘이다’는 띄어 쓰자

#### 3.8.1. 7차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

‘이다’는 체언에 붙어서 체언을 서술어로 기능하게 한다. 체언에 붙는다는 점에서 格助詞的 성격이 있고,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用言的 성격이 있다. 현행 학교문법에서 ‘서술격조사’라고 부르는 것은 체언 쪽의 격조사 주장을 받아들이고, 용언 쪽 입장을 조금 고려하여 ‘서술’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다(이관규, 2004: 145).

#### 3.8.2. 문제점

‘이다’의 ‘-이-’를 接辭(‘接辭說’)로 보고 단어로 보지 않는 것은 선행명사



의 꿀바꿈에 근거한 형태적 기준의 범주 설정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접사는 형태범주이므로 ‘이다’의 통사범주가 별도로 필요하다.

한편 分布的 기준에서 볼 때, ‘-이-’는 명사 뒤에만 나오므로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사가 활용한다는 것은 이 분석의 커다란 難點이다. 문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조사설’은 선호되지 않는다.

문장의 기능을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는 선행 명사를 도와 서술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形容詞化 轉成語尾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가 實質 意味를 갖는다면 ‘전성어미’의 일종으로 볼 수도 없다. 남길임(2001: 2)에서는 ‘이다’의 ‘-이-’가 다양한 용법의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임을 지적하고, ‘-이-’의 문법범주를 7가지의 大範疇로 설명하고 있다.<sup>44)</sup>

### 3.8.3. 提案

‘-이-’는 실질 의미가 있다. 예컨대, 거짓명제 ‘부산은 한국의 수도이다.’에서 만약 ‘이다’를 생략하면 ‘부산=한국의 수도’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가 ‘부산’과 ‘한국의 수도’를 等式化해 준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는 용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아래 (53)의 ‘같다’처럼 ‘이다’를 띄어 쓰는 방법이 문법을 단순화시키고 消耗的인 論爭을 終熄시키는 데 유리할 듯하다. 서술격조사라는 용어를 유지하는 維持費用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기술문법만이 능사는 아니며, 국어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어 문법을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sup>45)</sup>

(53) ㄱ. 그는 중국인 이다. // 그는 중국인 같다.

ㄴ. 중국인 인 그가 한국말을 참 잘 한다. // 중국인 같은 그가 한국말을 참

44) 명제적 구문, 속성적 구문, 양상적 구문, 어휘화, 관용구 형성, 분열문, 상화의존적 구문의 7가지이다. 이 중 ‘이다’의 용언적 용법은 앞의 둘로 제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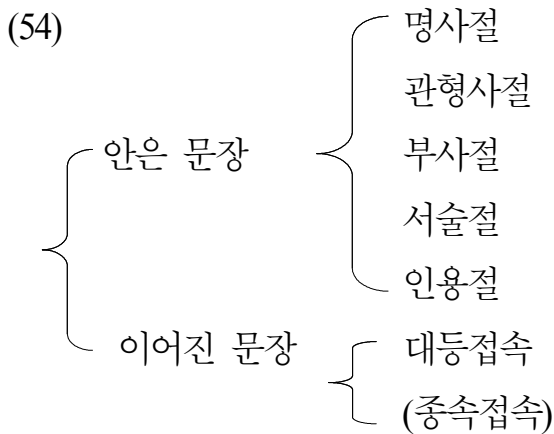
45) 물론 ‘망설이다’, ‘-은 모양이다’, ‘-는 법이다’처럼 어휘적으로 굳어버린 어형들은 띄어 쓸 필요가 없다. ‘철수는 천재다’처럼 ‘-이-’가 생략된 형태도 마찬가지다. 어휘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잘 한다.

### 3.9. 內包와 接續

#### 3.9.1. 7차 학교문법(「교육인적자원부, 2002」)

현행 학교문법(이관규, 2004: 255)에 의하면 겹문장(복문)은 안은 문장(內包文)과 이어진 문장(接續文)으로 나누어진다. 이어진문장(접속문)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대등 접속문)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종속 접속문)으로 둘 다 인정하는 방안과 대등접속문만을 인정하는 방안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3.9.2. 문제점

먼저 절 명칭의 문제가 있다. 유현경(2011: 350)은 “名詞節, 冠形詞節, 副詞節’은 品詞의 이름에서 온 것이고 敍述節은 문장성분의 이름을 딴 것이며, 인용절이라는 것은 의미적인 것이라 내포절의 하위 유형 간의 층위가 맞지 않는다. 또 문장성분의 이름을 따서 명사어절이라고 하면, 명사어절이 문장 내에서 부사격 조사나 관형격 조사, 서술격 조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 자리에도 올 수 있으므로, 품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것이 좋다.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이라 하고, 인용절은 부사절의 하위 유형인 인용 부사절이라 함이 합리적이다. 서술절의 경우도 동사절이나 형용사절이라 하는 게 옳다.”고 지적한다.

정희창(2014: 248)에서도 “서술절은 절 표지가 없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등이 품사의 이름인 것과 달리 성분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다른 절들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품사 명칭 작명과 문장성분 명칭 작명의 혼란에 대하여, 필자는 ‘절의 통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현재 학교문법의 내포절, 접속절의 이름은 품사에 기초한 용어들로 작명되어 있어서 문장성분과 불일치한다. 그 결과 ‘절의 통용’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명사절’이 (55)와 같이 문장에서 ‘명사절’ 이외에도 ‘부사절’, ‘관용절’, ‘서술절’, ‘인용절’로 쓰일 수도 있다.

- (55) ㄱ.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명사절 -> 명사절(목적어)  
       ㄴ. 나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명사절->부사절  
       ㄷ. 철수는 일찍 일어나기로 약속했다. 명사절->부사절(학교문법)  
       ㄹ. 나는 [집에서 놀고먹기가 싫었다]. 명사절->서술절(학교문법)  
       ㅁ. 철수는 그 시험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말했다. 명사절->인용 부사절(학교문법)  
       ㅂ. 이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명사절 -> 관형절

(55ㄱ)은 명사절이 조사 ‘를’ 앞에 와서 변화가 없지만, (55ㄴ)은 명사절 ‘먹고 살기’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서 수의적 성분인 부사절로 통용되고 있다. (55ㄷ) 역시 명사절 ‘일찍 일어나기’가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하여 부사절로 통용하고 있다.<sup>46)</sup> (55ㄹ)에서는 명사절 ‘집에서 놀고먹기’에 ‘싫다’가 결합하여 서술절로 쓰이고 있다.<sup>47)</sup> (55ㅁ)의 경우는 ‘그 시험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명사절이 부사격 조사 ‘라고’와 결합하여 인용 부사절로 통용되고 있다.<sup>48)</sup> 마지막으로 (55ㅂ)에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명사절이<sup>49)</sup>

46) 현행 학교문법과 달리 본고의 입장에서는 ‘일찍 일어나기로’가 ‘약속하다’의 필수 성분이므로 보어가 된다.

47) 본고처럼 서술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집에서 놀고먹기가’는 ‘싫다’의 보어절이 된다.

48) 이선웅·이은섭(2013: 268)에서는 현행 학교문법의 ‘인용절’ 분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정합성을 견지하는 방법으로 ‘-라고’를 (부사절 연결) ‘어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55ㅁ)의 밑줄 친 부분 (“그 시험은 땅 짚고 헤엄치기”)의 통사단위는 (어떤 명칭을 줄 수 없고) 그냥 ‘절’일 뿐이고, 절 뒤에 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관형절로 통용된 예이다.

한편 김영희(2004)에서는 종속 접속문을 내포문으로 보고 접속문의 하위 유형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을 한다. 그의 논거는 5가지이다. ①대등 접속문과 달리 종속 접속문의 선행절이 후행절 사이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②후행절의 성분만이 주제어가 될 수 있는 주제어 되기 현상 ③선행절의 주어나 주어가가 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후행절의 주어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여 재귀대명사로 실현될 수 있는 재귀대명사 되기 현상 ④후행절의 주어만이 상위절의 목적어로 승격할 수 있는 주어 올리기 현상 ⑤선행절의 주어 또는 주어의 관형어 명사구가 후행절 주어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여 영조응(zero-anaphor)로 실현될 수 있는 역행 지우기 현상이다.

그러나 위 5가지는 후행절이 주절이고, 선행절이 부사절 내포문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증거이지, 선행절이 종속절로 쓰일 수 없다는 적극적 증거는 아니다. 즉, 부사절은 의미적으로 볼 때, 아래처럼 종속접속문(56ㄱ)에 속할 수도 있고, 내포절(56ㄴ)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6) ㄱ.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 종속접속

ㄴ. 고기가 물이 너무 맑으면 모이지 않는다. - 부사절

즉,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을 어미 형태에 의해서만은 구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①대등 접속어미 ‘-고, -거나, -지만’ 등은 대부분 종속 접속 어미로도 쓰일 수 있다. ②대등접속이 형태적으로 선행절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등과 접속의 판단은 의미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sup>50)</sup>

이 부분은 이론문법 내적 검증이 요구된다.

- 49) ‘절(S)’이 그대로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일 때는 ‘명사구(NP)’로 사용된다. 필자가 아는 한 절이 용언으로 쓰이는 경우는 서술절 이외는 없는 것 같다. 정희창(2014: 245)에서는 ‘안긴 문장’이라는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어차피 다른 문장 안에 나타나는 것은 ‘절’이므로 ‘문장’이라는 이름을 써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 50) 보문과 보절의 명칭과 관련하여서, 유현경(2011: 351)에서는 “보문의 개념은 명사나 동사의 보충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박병수(Park, 1972) 등의 견해와, 어말어미가 이끄는 모든 문장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안명철(1992) 등의 논의로 나누어진다. 어말어미를 보문소(COMP)로 보고 어말어미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장을 보문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절과 문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보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전통적

## 3.9.3. 提案

品詞名에 기초한 분류 명칭을 유지하고 ‘節의 通用’도 인정해야 위의 (55)와 같은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 정희창(2014, 242)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57) ㄱ. “일할 때는 일만 해야 한다.”가 그의 신조다.

ㄴ. 아가씨는 “난 저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어.”라고 말했다.

정희창(2014, 243)에서는 (57)과 관련하여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전자는 인용절이 ‘-고, -(이)라고’를 포함하며 부사절이라는 입장이고, 후자는 인용절이 ‘-고, -(이)라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사와 결합한 (57ㄱ)을 부사절로 볼 수는 없으므로, (57ㄱ)의 인용절 자체는 명사절로 보는 것이 일관성을 줄 수 있다. 다만 (57ㄴ)처럼 절의 통용을 인정하여 명사절이 부사절로 통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57ㄴ)은 최단 구조로는 인용 명사절(‘난 저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어.’)이고 최장 구조로는 인용 부사절(‘난 저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어.’라고)이 된다.

그리고 현행 학교문법의 복문 구조에서 안은 문장(내포)은 형식(구조)에 기초한 분류이고, 이어진 문장(접속)은 의미적 분류이다. 층위가 맞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으로 분류 기준을 통일시키는 게 좋다.<sup>51)</sup> 그런데 언어 유형적인 보편성은 의미적 분류이므로 대등접속과 종속 접속의 2대 분류로 통합하고, 대신에 절의 통용을 인정하면 품사 명칭과 문장성분의 불일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으로 명사구 보문이나 동사구 보문 등과 같이 성분절의 일종을 보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보문’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절(補節)’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웅·이은섭(2013: 257)에서도 文과 節의 차이를 논증하면서 “‘절’ 개념이 반드시 문장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떼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즉 절은 주술 관계가 한번 성립한 통사적 구성이다).”

51) 원칙적으로 복문을 내포 기준으로, 또는 접속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므로 양립 가능하다.

(58) 의미에 기초한 복문의 종류

대등 접속 - 나열, 선택, 대조

종속 접속 - 부사절(동시, 계기, 전환, 이유, 원인, 조건, 목적, 인정, 방법, 수단, 배경 등)

명사절(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

관형절

형용사절, 동사절(서술절을 인정하는 경우)

#### 4. 結論

지금까지 주로 언어 유형론의 입장에서 統辭論의 懸案들을 살펴보고 학교문법 기술을 위한 提案을 해 보았다. 다루어진 문제들이 많고, 논의가 충분히 熟成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논리 전개가 정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또 어쩔 수 없는 지면 제약도 있어서, 상세한 설명은 해당 부분에 밝힌 필자의 이전 논문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존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본고의 提案들은 지나치게 革新的일 수도 있다. 현행 학교문법의 形式主義 體系性, 학교문법의 容易性, 그리고 학교문법의 效用性 등을 고려해 보면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해묵은,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문제점들이 학교문법의 형식주의 체계 안에서 더 이상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언어 유형적 보편성은 형식이 아니라 기능·의미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普遍性에 기반을 두지 않은 문법은 고립되고 기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적지 않은 試行錯誤가 있겠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1』, 한국문화사.
- \_\_\_\_\_ (2008), 「조사, ‘를’의 의미와 실현」,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pp.207~228.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창수(1985), 「어간형성접미사 의 설정에 대하여-통사론적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2 ㄱ),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2 ㄴ), 『문법(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 김기혁(2000), 「남북한 문장론(통사론) 연구의 쟁점과 방향」, <민족문화연구> 33호, pp.1~30.
- 김은성(2006),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남길임(2001), 「‘이다’ 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윤진(2000), 「현대 국어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국어학총서』, 태학사.
- 목정수(1998), 「한국어 조사 ‘가, 를, 도, 는’의 의미 체계」, <언어연구>(서울대 언어연구회) 18, pp.1~48.
- 서정목(1984), 「의문사와 WH-의문 보문자의 호응」, <국어학> 13, 국어학회, pp.33~64.
- 송경안·이기갑(2008), 『언어 유형론 1, 2, 3』, 월인.
- 신명선(2008),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pp.357~392.
- 신서인(2014), 「이/가, 을/를의 비변형적인 분포와 기능」, <국어학> 69, pp.69~103.
-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pp.107~132.
- 우순조(1997), 「국어 어미의 통사적 지위」, <국어학> 30, 국어학회, pp.225~256.
- \_\_\_\_\_ (2015), 「동사 접미 파생과 활용 개념의 부조화」,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pp.97~133.
- 유현경 외(2011),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 유현경(2011), 「접속과 내포」,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유현경 외(2010)) 포함. 태학사.
- \_\_\_\_\_ (2013),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_\_\_\_\_ (2014), 「2014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국립국어원.
- 이관규(2004), 『(개정판) 학교문법론』, 월인.

- 이문규(2008), 「문법 교육의 성격과 학교 문법의 내용」, <언어과학연구> 46, 언어과학회, pp.23~41.
- 이선웅(2014), 「기술문법과 학교문법(총론)」, <국어학> 69집, pp.167~205.
- 이선웅 · 이은섭(2013),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pp.249~277.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 이익섭/채완(2002),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pp.87~130.
- \_\_\_\_\_(2014), 「보조사의 의미론」, 제 41회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경희대학교 오비스 홀 1111호, <국어학> 73, 재록.
- 임홍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93~163.
- 정희창(2014), 「국어 문법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pp.233~254.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역대문법대계, 1-47, 탑출판사.
- 최형용(2013),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한정환(2010), 「용언형 언어의 문법범주」, <한국어학> 49, pp.405~440.
- \_\_\_\_\_(2011), 「통사 단위 단어」,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 \_\_\_\_\_(2012), 「조사 ‘의’와 특정성」, <한민족문화연구> 40호, pp.39~72.
- \_\_\_\_\_(2013 ㄱ), 「국어의 주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 유형론의 관점, 서술어의 유형별 주어 정의」, <한국어학> 60, pp.189~225.
- \_\_\_\_\_(2013 ㄴ), 「명사 논항의 자릿수와 이중주어 구문의 주어」, <한국어학> 61, pp.369~402.
- \_\_\_\_\_(2015 ㄱ), 「한국어 ‘어미’의 품사론, 문장성분론」, <한국어학> 66, pp.87~125.
- \_\_\_\_\_(2015 ㄴ), 「국어의 목적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 유형론의 관점, 서술어의 타동성에 의한 목적어 정의」, <한국어학> 68, pp.271~304.
- Comrie, B.(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2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e-Jung Song [김기혁 역], 『언어유형론 - 형태론과 통사론』, 보고사.
- Lindsay J. Whaley, [김기혁 역], 『언어유형론』, 소통.



■ ABSTRACT

## Issues of Korean Syntax and School grammar

Han, Jeong-h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rst, to examine issues of modern Korean syntax, and second, to introduce the ways of describing the issues of Korean syntax in present 7th high school grammar curriculum(2002), and third to propose the alternative approaches based mainly on linguistic typology.

Although it has been a lot of research papers concerning the issues of Korean syntax, a few of paper has dealt with them in relation to High School grammar. It's for sure that there have been some reasons to do so up to the point, among them scholars were reluctant to talk about it because of the standard, and norm tendency of School grammar. However,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I feel the necessity of talking about this issues; (1) there must not be a gap between academic grammar and school grammar, (2) It have been considerable period of time since the 7th high school grammar curriculum has been set up in 2002. (3) We need to actively discuss about the ways of applying and materializing academic grammar into school grammar before it's too late.

This paper deals with 9 major issues of Korean syntax; that is to follows, (1) the definition of word, (2) grammatical status of Eomi, (3) the difference of part-of-speech and word, (4)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case markers, (5) the definition of subject, (6) the definition of object, (7) the definition of complement, (8) 'Ida' to be better written separate, (9) embedded or subordinated sentences.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some alternative approaches at school grammar which have been discussed for long among scholars in academic grammar.

※ key-words: Issues of Korean Syntax, School grammar, language typology,  
word, ending, case markers, subject, object